

U-20 한국 축구, 일본 잡으러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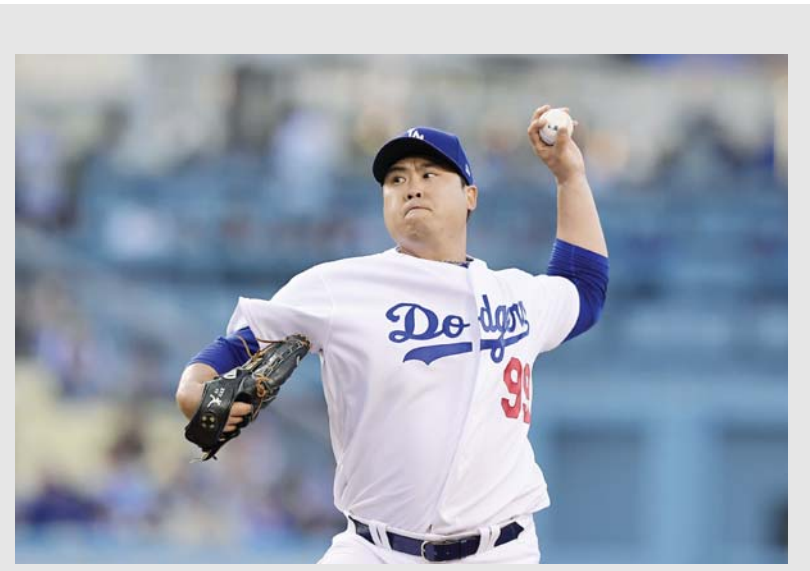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폴란드 월드컵에서 도전을 계속하게 된 리틀 태극전사들이 속속 일본과 외나루다리에 격돌한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5일 오전 0시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일본을 상대로 대회 16강전을 치른다. 조별리그에서 살아남은 아시아 국가가 한국과 일본뿐이다. 수십 년간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아시아 축구를 생판이한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이름값을 했다. 일본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4강 진출로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었다. 당시 한국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덜미를 잡혔다. 두 팀은 본선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국은 F조에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쟁한 끝에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포르투갈과 첫 경기에서 졌지만 남아공과 아르헨티나를 연속 격파하며 2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2017년 한국 대회 이후 2회 연속 16강이다. 일본은 B조에서 이탈리아, 에콰도르, 멕시코와 다투었다. 에콰도르와 첫 경기를 비긴 일본은 멕시코를 꺾고 승점을 확보했고, 마지막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따내며 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다. 흐름은 한국이 조금 더 나은 편이다. 대회 초반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았지만 시간을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대회 초반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았지만 시간을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정정용호, 내일 자정 日상대 16강전 치뤄 역대 전적 28승9무6패 우위... 韓 경기력 ↑

다. 대회 최고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이강인(발렌시아)의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오세훈(아산), 조영욱(서울) 등 공격진이 꽃밭을 밟는 점도 긍정적이다. 반면 일본은 공격진 쏠림에 시달리고 있다. 장신 스트라이커 다가와 교스케(도쿄)와 고교생 사이토 고키(요코하마FC)가 각각 어깨와 허벅지 부상으로 조기 귀국하며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전에서 말티골을 넣은 기대주 미야시로 다이세이(가와사키)의 컨디션 난조도 우려스럽다는 일본 현지지의 보도가 나왔다. 주장 완장을 찬 공격수 사이토 미츠키(쇼난)가 있지만, 두 명이 한꺼번에 빠진 탓에 무게감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다. 분위기는 한국이 낫지만, 일본이 순순히 승리를 넘겨줄 리는 없다. 일본 주장 사이토는 일본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경기를 봤다.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간단히 말해 강한 팀"이라고 한국을 높이 평가했다. "굉장히 뜨거운 경기를 펼치는 팀인 것은 물론 한국인다운 강력함도 느껴졌다. 팀을 위해 전원이 투혼을 불사하며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모두가 하나로 뭉친

정말 좋은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 저서는 안 된다. 진다면 승부가 한국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정신적인 면에서)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한국의 각오도 다부지다. 정 감독은 아르헨티나전 후 "자신감을 갖고 16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인도 "바이발이지만 하단대로 잘하는 것을 준비하겠다"면서 "질 수도 이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역대 전적에서는 28승9무6패로 한국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는 1승1무1패로 팽팽했다. 한국과 일본이 이 대회에서 맞붙는 것은 16년 만이다. 2003년 이란에 미리트(UAE) 대회 16강전에서 일본에 1-2로 패한 이혼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은 최성국(은퇴)이 선취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이후 사카타 다이스케에게 동점골을 얻어맞고 연장 전반 다시 한번 사카타에게 골든골을 내주며 탈락했다. 두 팀이 U-20 월드컵에서 만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류현진, 내일 애리조나 원정 등판

시즌 9승 도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9승 도전에 나선다. 3일(한국시간) 다저스 구단은 4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와의 3연전 선발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5일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올 시즌 11경기에서 8승1패 평균자책점 1.48을 기록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평균자책점 전체 1위, 다승 2위다. 5월 성적은 더 눈부시다. 6경기에서 5승무패 평균자책점 0.59로 호투를 거듭했다. 이 기간 이닝당 출루 허용율(WHIP) 0.68, 피인타율 0.177로 압도적인 피칭을 펼쳤다. 이달의 투수상도 유력하다. 최고의 5월을 보낸 류현진의 6월 첫 등판이다.

애리조나를 상대로는 통산 14경기에 등판해 4승3패 평균자책점 3.59를 기록했다. 올해 개막전에서 애리조나를 상대한 류현진은 6이닝 4피안타(1홈런) 8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고 승리를 챙긴 바 있다. 방심은 금물이다. 체이스필드에서의 성적은 썩 좋지 않다. 류현진은 체이스필드에서 통산 7차례 등판해 2승2패 평균자책점 4.89를 기록했다. 애리조나 선발은 우완 테일러 클리크가 나선다. 올해 빅리그에 데뷔한 클리크는 4경기에서 1승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5.19를 기록하고 있다. 다저스전은 첫 등판이다. 경계할 타자로는 에두아르도 에스코바가 꼽힌다. 에스코바는 류현진을 상대로 7타수 3안타(0.429)를 기록했다.

뉴스스

'핫식스' 이정은, US여자오픈 역전승...데뷔 첫 우승

'핫식스' 이정은(23·대방건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데뷔 후 첫 우승이다. 이정은은 3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71·653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전날을 공동 6위로 마감한 이정은은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로 공동 2위인 유소연(메디힐), 에인절 인, 렉시 톰슨(이상 미국) 등을 2타 차 따돌리고 역전 우승 드라마를 썼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 막 대

뷔한 이정은의 첫 승이다. 9번째 대회 출전에서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게다가 권위있는 메이저대회 우승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여러가지 부상이 따라온다. 우승 트로피와 금메달 그리고 향유 10년간 US오픈 참가권을 얻는다. 또 이번 시즌부터 상향 조정된 우승상금 100만달러(약 11억9000만원)도 챙겼다. US여자오픈에서 한국선수들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려왔다.

1998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2017년 박성현에 이르기까지 총 8명의 우승자가 나왔고, 이날 이정은이 트로피를 추가하며 9번째 우승자에 이름을 올렸다. 4라운드에서 1오버파를 친 박성현은 최종합계 1언더파로 이민지와 함께 공동 12위에 올랐다. 이번주에 선수로 참가한 재미동포 지나 킴(19)도 공동 12위로 선전했다. 박인비, 고진영, 김세영은 이븐파로 공동 16위에 자리했다.

이정은은 6일(현지시간)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에서 막을 내린 제74회 US 여자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정은은 6일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로 2위 셀린 부티에(프랑스)를 1타 차로 제치고 자신의 LPGA 첫 승을 가장 큰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장식했다.



'이름뜸 장거리골' 광주, 14경기 연속 무패

1위 탈환...아산, 4위 점프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광주 FC가 하루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광주는 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14라운드 FC 안양파 경기서 1-0으로 이겼다. 후반 18분 광주 이름뜸이 44m 지점에서 시도한 장거리 프리킥이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이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14경기 연속 무패(8승무)를 기록했다. K리그2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승점 30 고지를 밟으며 전날 부산 아이파크(승점 28·8승4무2패)에 내줬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안양은 승점 19(6승4무5패)를 기록, 리그 5위를 마크했다. 아산 무궁화는 서울 이랜드를 2-0으로 격파했다. 전남 38분 이명주가 결승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 송환영이 썩기골을 넣어 승리를 따냈다. 아산은 최근 8경기 무패(3승3무)를 기록, 승점 21(6승3무5패)로 리그 4위에 올랐다. 서울 이랜드는 4연패 끝에 빠지며 승점 8(1승5무8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